




| | | | | | |
|---|---------|---|---|---|--|
|  해양수산부 | | 보도자료 | |   | |
| | | 배 포 일 | 2021. 8. 24.(화) 총 2매(본문 2) | | |
| 담당 부서 | 어촌어항재생과 | 담 당 자 | • 과장 김태경, 사무관 김기훈, 주무관 민현태 • ☎ (044)200-6170, 6048, 6176 | | |
| 보 도 일 시 | | 2021년 8월 24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8.23.(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 | | |

어촌·어항 재생 위해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나선다

- 전국 3개 지역에서 어촌공동체 기반 사회적경제 모델 개발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어촌·어항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함께 ‘어촌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모델’ 개발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어촌공동체 기반 사회적경제 모델’ 개발 사업은 어촌뉴딜300 대상지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 모델을 개발하여 해당 지역에 제공함으로써 어촌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어촌 마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지난해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 2곳(화성 백미항, 서산 중왕항)을 모델로 ‘어촌어항재생사업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모델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백미항 어촌계는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추진하는 등 어촌계의 사업적 기업 전환을 모색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중이다.

올해는 작년에 추진한 ‘어촌뉴딜300 사업대상지 중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가능성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업 계획의 구체성·타당성, 조직 및 외부협력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난 7월에 3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경북 경주·포항, 경남 남해, 전남 여수지역에서는 지역 특색에 맞는 사회적경제 조직 설립 및 운영,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개발, 다양한 시범사업 운영 등을 통해 어촌공동체 기반 사회적경제 모델 개발이 추진된다.

먼저, 경북 경주 나정항 및 포항 삼정리항·신창2리항의 경우, 해녀의 공동체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 특화상품 및 서비스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모델 개발을 통해 고령화 및 저소득으로 인해 전통 나잠 어업이 사라질 가능성을 줄이고, 해녀문화를 유지·보존해 나감과 동시에 공동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남 남해 상주항의 경우, 어촌뉴딜300 사업으로 건립되는 거점시설 등 지역자원을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 설계를 통해 사회적경제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상주해수욕장변영회, 상주중학교 학부모들이 주축이 된 동고동락협동조합 등 지역 내 주민 단체들의 참여로 내실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 설립 및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 여수 금오도에 소재한 직포항의 경우, 금오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연간 약 24만명)의 요구에 맞는 상품 및 서비스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마을에 정착한 40~50대 귀어인들이 지역 특산물을 중심으로 공동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을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이번 ‘어촌공동체 기반 사회적경제 모델’ 개발 사업이 어촌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연안 환경 변화에 따른 소득 감소, 사회서비스 부족 등으로 어촌 소멸에 대응하는데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과 김태경 과장은 “본 사업이 어촌뉴딜300 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향후 어촌지역의 일자리 확대와 지역주민의 이익 공유가 가능한 어촌공동체 기반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의 토대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사업목표

- 어촌뉴딜사업 완료 이후, 시설물이 방치되지 않고 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이를 운영할 지역 공동체의 역량강화 필요
- 지역주민의 참여·운영 및 이익 공유가 가능한 어촌형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육성하여 어촌뉴딜 대상지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
- '어촌공동체 기반 사회적경제 모델 개발 지원 사업' 추진
- * 사회적경제란 구성원 간 협력을 바탕으로 재화 및 용역의 생산·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적 활동(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 사업설명회

- (회의개요) 어촌공동체 기반 사회적경제 모델 개발 설명회를 개최하여 각 사업대상지별 사업추진 방향 및 내용, 성과 도출 관련 논의 등
- (일정 및 장소) '21.8.24(화) 14:00 / 경북 포항 구룡포
- (사업대상지) 어촌뉴딜300 사업지로 선정된 250개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3개소*를 선정하고 지역별 특색에 맞는 사회적경제 모델 개발 지원
- * 경북 경주·포항, 경남 남해, 전남 여수
- (지원내용) 어촌공동체 기반 사회적경제 진출 모델 개발을 위한 교육, 컨설팅, 기반조성, 협업을 위한 사업비(개소당 3천) 지원
- (논의사항) ①어촌공동체 기반 사회적경제 모델 개발 과업내용 공유
②세부 사업추진 계획, ③사회적경제 모델 개발 결과에 따른 성과 홍보 방안 등

□ 향후계획

- (성과공유 및 확산) 지역별 특색에 맞는 사회적 경제 모델 개발 성과를 온·오프라인 홍보매체를 통해 어촌뉴딜 사업지에 홍보

참고 2

사업대상지 세부 사업내용

| 권역 | 선정지역 | 사진자료 |
|---|-------------------------------------|--|
| 1권역 | 경북 경주 나정항, 포항 신창2리 항, 포항 삼전리항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내용) 해녀의 공동체성과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 특화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한 사회적경제 진출 모델 개발 ○ (총사업비) 30백만원 ○ (추진계획) 해녀 채취 수산물을 지역 사회적기업과 연계 상품화, 해녀공동체 조직화 지원, 해녀 관련 관광,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서비스 콘텐츠 개발 | | |
| 2권역 | 경남 남해군 상주항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내용) 어촌뉴딜 300 사업으로 건립되는 거점시설 등 지역자원을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 설계를 통한 사회적경제 진출 모델 개발 ○ (총사업비) 30백만원 ○ (추진계획) 상주항 지역현황조사, 사업성 검토를 통해 동고동락협동조합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사회적경제 조직 설립 | | |
| 3권역 | 전남 여수시 직포항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내용) 금오도에 소재한 여수 직포항을 중심으로 방문 관광객 수요에 맞는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한 사회적경제 진출 모델 개발 ○ (총사업비) 30백만원 ○ (추진계획) 직포항 사업지 분석 및 자원조사, 어촌공동체 대상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프로그램 진행,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사회적경제 조직 설립 | | |

경주 나정항



포항 삼정리항



포항 신창2리 항



남해 상주항



여수 직포항

